

300-5-120.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2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 계속)

- 1934년 6월 11일 崔次玉에 대한 聽取書가 京城 鍾路警察署에서 조사·작성되었으며, 동일 被疑者 訊問調査가 姜晦求·李順今·白潤赫·金鎮煥·朴鼎斗·李點洙 등에게 실시되었고, 6월 12일 金喜鎭·崔慶玉·朴東奎 등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다. 6월 13일 高宗圭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와 卞洪大의 청취서 가 작성되었다. 6월 14일 李禮今·卓在弼·崔泰元·李元鳳 등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南鳳姬의 청취서가 조사·작성되었다.
- 1934년 6월 15일부터 2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姜近熙·盧淑仁·李承義·姜貞信·鄭顯順·李明新 등에게 실시되었고, 林柄東에 대한 證人訊問이 있었다. 龍山警察署의 赤色勞動組合 建設委員 檢舉報告 및 實況書·分析書가 작성되었으며, 押收 搜索이 있었다. 14일 李元鳳 외 11명의 차압조서와 수색조서가 작성되었으며, 權任順의 청취서 작성과 차압이 있었다.
- 17일 金三清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李元鳳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18일 南學分の 피의자 신문조사와 尹慶喜의 差押이 있었다. 19일 元順奉의 피의자 신문조사와 林炳烈·柳基順의 청취서 작성과 차압이 있었고, 20일 崔順伊·李福順의 청취서 작성과 李惠淑·李炳勇의 證人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21일 田順任·趙鳳正의 증인 신문조사와 姜好男의 청취서가 작성되었다.
- 6월 26일 李鍾淑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었고, 27일 崔浩熊의 청취서 작성, 28일 田泰任의 청취서 작성, 30일 朴愛其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6월 1일 金點順·鄭順伊·吳奸蘭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6월 4일 梁田煥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 다음에는 각자의 素行調査가 作成, 收錄되어 있다.